



## 서구기록사업이란?

서구기록사업은 2020년 8월 시민기록가 양성을 시작으로 구술채록과 지역학 발간, 매거진 제작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서구의 이야기를 기록해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아카이빙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기록 목적에서 출발해 점차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상 기록으로 확장하여 기록의 문턱을 낮추고 참여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서구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공간이며 서구기록사업은 그 변화의 순간을 지역 주민의 시선으로 꾸준히 포착해 왔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지금 서구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경험과 감정, 일상의 장면들을 다양한 매체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참가자들이 직접 서구의 공간을 여행하고 일상 속에서 서구를 새롭게 바라보며 기록자로 성장하는 경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글 기반의 아카이빙을 넘어 영상이라는 디지털 시대에 맞춘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기록 방식을 도입하며 서구에 대한 감정, 경험, 사유를 입체적으로 담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서구기록사업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지역과 사람, 삶의 의미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서구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을 모으고 그 안에서 살아 숨 쉬는 이야기를 오늘의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 2025년 서구기록사업은

### '서구로 과몰입'이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과몰입'이란 좋아하는 대상에 깊이 빠져들어 그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진솔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참가자들은 인천시 서구라는 지역에 몰입하여 서구의 본질을 이해하여 나만의 서구 여행을 계획 및 촬영하면서 서구의 오늘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능동적인 기록자로 거듭납니다.

서구를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는 친절한 안내서가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참여자들에게는 자신이 살아가는 동네를 애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여정이자, 다른 시대에게 전해줄 값진 기록이 될 것입니다.

서구 과몰입러들이 여행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 다니던 길목, 친구와 함께 발견한 공간, 우연히 마주친 풍경까지도 모두 기록의 대상이 됩니다. 학생, 청년,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각기 다른 시선으로 서구를 기록함으로써 서구의 또 다른 일상, 또 다른 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춘 기록 방식을 통해 과몰입러들의 의도와 순간의 감정, 경험, 정보를 보다 효과적이고 입체적으로 담고자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에서는 서구 과몰입러들이 직접 선택하고 꾸린 여행주제와 코스, 그 과정에서 느낀 경험과 감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기록은 서구라는 지역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집합적 아카이브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추억과 순간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이드북을 읽는 독자들은 그들의 경험과 감정에 공감하며 우리 서구를 여행, 힐링 등 다양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시작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 한 눈에 보는 서구 과몰입 지도



# Contents



## PROLOGUE

### 소개의 말

- 01 **2025년 서구기록사업 <서구로 과몰입>**  
서구 과몰입러들이 직접 선택하고 꾸린 여행주제와 코스,  
그 과정에서 느낀 경험과 감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 PART 01

### 서구, 누구나 과몰입 하다

- 05 **김이영 '아이와 함께 하는 서구 여행'**  
가재울 꿈어린이도서관 → 신현동 아이사랑꿈터 → 국립생물자원관
- 08 **박도윤&홍순기 '서구에서 오천원의 행복'**  
북경짜장 검단점 → 할메산 → 마전도서관 → 간식코스
- 11 **류동권 '서구 청년 새싹이를 위한 첫 걸음 안내서'**  
그로잉라운지 → 서구1939 → 서구 드림 아카데미 신현

## PART 02

### 서구, 자연에 과몰입 하다

- 15 **박재성 '서구 자연에서 느끼는 일상 속 심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 연희자연마당
- 18 **김은지&임세은 '서구 MZ들이 픽한 오감만족 친환경 사진여행'**  
청라호수공원 →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 정서진중앙시장

## PART 03

### 서구, 가치에 과몰입 하다

- 23 **한사랑 '서구에서 세 가지 에너지 충전하기'**  
검단역 → 검단선사박물관 → 아라보타닉파크 → 경인아라뱃길
- 26 **박선미&최찬규 '서구의 자랑거리, 녹청자'**  
인천 녹청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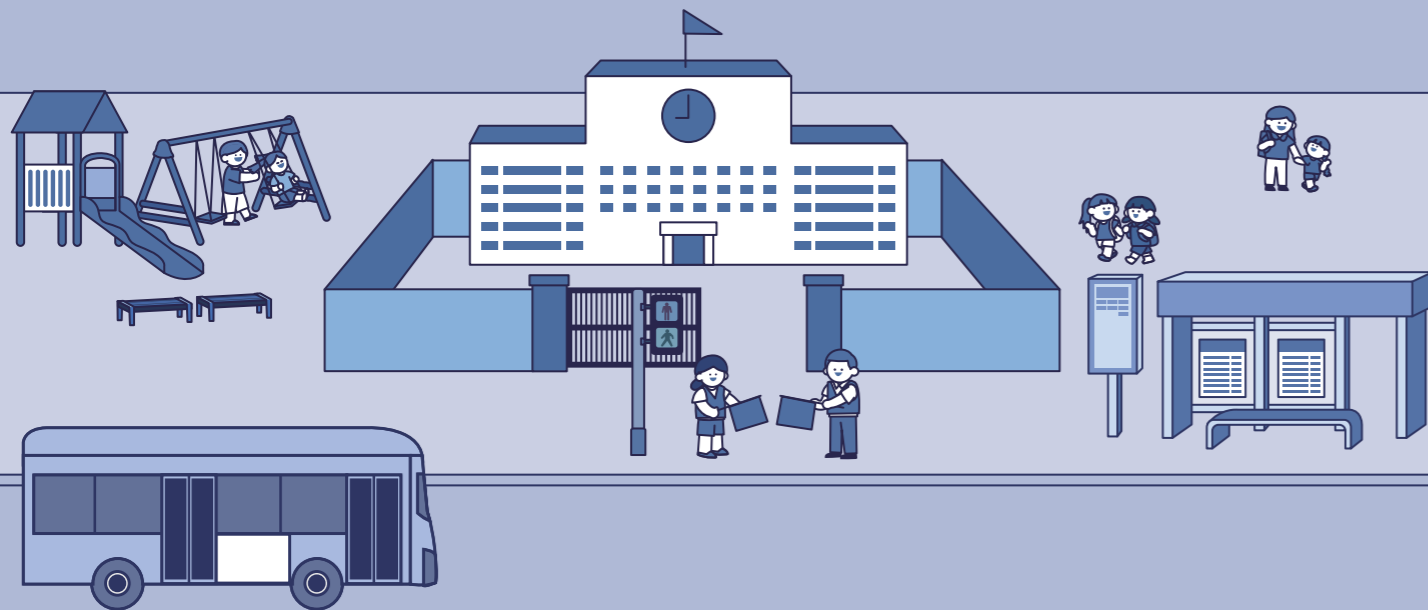
# 김아영



## 아이와 함께하는 서구 여행

### PART 01

# 서구, 누구나 과몰입하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먼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A** 김아영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에서 어린 딸과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서구기록사업을 알게 되었는데요. '기록을 영상으로 남긴다'는 점과 '영상 촬영과 편집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져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Q** 아이와 함께 촬영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영상 주제는 어떻게 정하게 되셨나요?

**A** 김아영 처음엔 뭘 기록해야 할지 많이 고민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다녔던 동네 명소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다 '그래, 일상 그대로를 담은 브이로그 방식이면 아이도 편하게 찍을 수 있겠다' 싶어서 주제를 정하게 됐죠. 결국 아이의 순수한 반응과 귀여운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영상에 담기면서 정말 저희 가족만의 기록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Q** 실제로 다녀오신 장소들은 어디였나요?

**A** 김아영 도서관, 자원관, 꿈터 같은 서구의 공공기관 위주로 다녔어요. 원래는 주말마다 키즈카페에서만 시간을 보냈는데, '서구 안에도 아이와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브이로그를 통해 그런 장소들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 일상처럼 보여주면서 이용 방법, 예약 방식, 체험비가 무료이거나 저렴하다는 점까지 자연스럽게 담아보려 노력했습니다.

**Q** 영상을 직접 제작하면서 특별히 느꼈던 점이 있을까요?

**A** 김아영 아이가 동행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미처 보지 못하던 시선을 볼 수 있었어요.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곳도 아이 눈엔 새롭고 흥미로운 공간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배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늘 다니던 장소가 '기록해야 하는 장소'가 되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 공간이 이렇게 의미 있었구나, 이런 부분은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알려드리면 좋겠다'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Q** <서구로 과몰입>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김아영 '인천 서구 안에도 아이와 함께 다닐 수 있는 좋은 장소들이 정말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가족들이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공공시설들이 잘 마련돼 있고, 수유실이나 주차 공간도 잘 갖춰져 있어서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어요.

**Q** 마지막으로 이 여행을 추천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까요?

**A** 김아영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님들께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아이가 뛰어놀면서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이 많고,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예요. 단순히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요소도 담겨 있어서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서구로 과몰입>을 계기로 '단순한 일상'이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아이가 크면서도 이 영상을 돌려보며 함께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아 더욱 뜻 깊었습니다.

# 아이와 함께하는 서구 여행

## 7세 아들 여름방학 브이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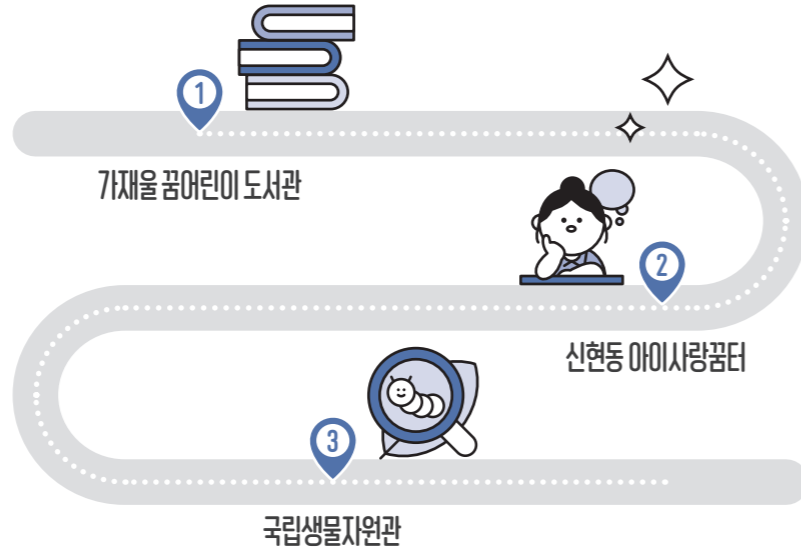
☆ 영상 정보



인간행복서 서구문화팀



영상 바로보기



### 1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은 '책 읽어주는 학부모', '아이의 문해력을 키우기'의 주제에 딱 맞는 장소입니다. 북카페부터 자료실까지 어린이와 어른 모두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2층에는 어린이 자료실, 영유아 자료실이 있으며, 1층에 놀이마루와 북카페도 있습니다. 놀이마루라는 미취학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넓은 놀이공간도 있는 점이 다른 도서관과의 차별점입니다. 이 곳은 만 0세~6세 아이들이 이용 가능하며 네이버로 미리 예약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키즈카페처럼 부엌놀이나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장난감도 많아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놀 수 있습니다. 보통 도서관을 가면 아이가 책만 빌려서 빨리 나가고자 하는데, 처음으로 1시간 넘게 책을 편하게 읽고 더 읽고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유아 자료실에서 빅북(큰 책) 대여가 가능해서 아이 유치원에서 '책 읽는 학부모'를 진행할 때 이 곳에서 빅북을 대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린아이까지를 위한 다양한 책을 보유한 도서관



**위 치** 인천시 서구 건지로334번길 45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09:00 ~ 17:00

**이용료** 무료

**휴무일** 금요일

**문의** 032-585-7160

**비 고** • 영유아 전용  
• 보호자 동반 입장 필수  
• 사전예약제 (\*놀이마루만 적용)

### 2 신현동 아이사랑꿈터

아이사랑꿈터는 '국민장난감', '부피가 큰 데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들이 많은 공간입니다. 집 밖에서 또래 아이들도 만날 수 있고 아이 양육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서구1호점을 촬영하면서 센터장님을 만나뵙게 되었는데, 친절히 맞아주셨고 2025년 8월에 볼풀장 리모델링이 끝나고 영상에 담겼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볼풀장을 좋아하는 저희 아이를 데리고 8월 이후에도 재방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 치** 인천시 서구 봉오재1로 36 아파트 내 공동시설 아이사랑꿈터 서구1호점

**운영시간** 09:00 ~ 18:00

**이용료** 2시간 당 1,000원

**휴무일** 월요일, 일요일, 공휴일

**문의** 032-583-5275

**비 고** • 영유아 전용  
• 보호자 동반 입장 필수  
• 사전예약제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볼풀장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우리 아이



키즈카페 부럽지 않은 놀이시설들

### 3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태계, 생물계의 상설전시관과 분기별 변경되는 기획전시관, 3층까지 있는 넓은 공간에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료가 무료입니다. 또한 실내 공간이기에 날씨가 궂어도 휴관일이 아니라면 갈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저희는 무더운 날 방문했는데, 큰 쇼핑몰을 돌아다니듯이 쾌적하게 산책하듯 다닐 수 있었고 더불어 교육적으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요소가 가득했습니다. 디지털 반응 체험관이 많아서 아이가 신나게 즐기면서 한 시간 이상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사전에 자원관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장소를 방문해서 '생생 여름학교'가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우연히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팔찌만들기, 기념품 받기도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는 사전에 운영 프로그램도 확인해보고 자원관에서 진행하는 해설 프로그램도 신청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위 치** 인천시 서구 환경로 42

**운영시간** 09:30 ~ 17:30

**이용료** 무료

**휴무일** 월요일  
공휴일(휴무기간 확인)

**문의** 032-590-7000

**비 고** • 유아시설 보유  
• 17:00 마지막 입장



디지털 반응 체험에 흠뻑 빠진 모습의 우리 아이



여러 체험으로 가득했던 특별 운영 프로그램

# 홍순기&박도윤



## 서구에서 오천원의 행복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어떤 계기로 <서구로 과몰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A** **홍순기**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홍순기라고 합니다. 인천 서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꼭 살았는데, 사실 그동안 서구에 대해 큰 관심은 없었어요. 부모님이 운전해주시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다 여름 방학 때 아동센터 시설장님께서 의미 있는 활동을 추천해 주셔서 친구 도윤이와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서구로 과몰입> 전단지를 통해 서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고, 영상 제작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흥미가 생겼어요.

**박도윤** 안녕하세요.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외식도 잘 안 하고 밖에서 노는 일도 별로 없는 스타일이에요. 보통 평소에 게임하거나 숙제하던 저였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랑 함께 직접 여행 코스를 짜보고 촬영도 해본다는 게 새로웠고 제게는 도전이었어요.

**Q** 영상의 제목이 인상 깊었어요. '오천원으로 떠나는 서구 여행'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A** **박도윤** 요즘 물가가 정말 높잖아요. 그래서 '과연 오천원으로 여행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그게 가능하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싶었어요. 특히 학생들이나 저회처럼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홍순기** 맞아요. 저희가 짠 코스는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북경짜장에서 맛있는 식사 하고 할메산에서 자연의 쉼도 느끼고, 마전도서관에서 마무리 하는 짧지만 알찬 코스였죠.

각 장소가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꾸준히 존재하면서 사람들에게 쉼과 따뜻함을 주고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Q** 실제 촬영이나 여행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A** **박도윤**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촬영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편집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순기랑 함께여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몇 주 걸렸을 것 같은 기획도 순기가 옆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줘서 순조롭게 진행됐고요.

**홍순기** 저도 걸어서 하는 여행이 익숙하지 않아서 걱정됐지만, 도윤이와 직접 발로 걸어 다니면서 서구를 여행해 보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보였어요. 편집은 힘들긴 했지만, 영상으로 직접 담아내는 게 재미있었어요.

**Q** 여행을 통해 특별히 느낀 점이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A** **홍순기** 여행 중 들렀던 장소들(북경짜장, 할메산, 마전도서관)이 다들 오랜 시간 같은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기억에 남아요. 가격을 올리지 않고 여전히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 조용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산,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도서관... 그런 장소들이 있다는 게 고맙고,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 이어 지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박도윤** 저는 처음엔 자연을 중심으로 여유롭고 힐링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고 싶었는데, 북경짜장을 소개하고 싶어서 중심으로 잡게 됐어요. 영상 속에서 저희가 재밌게 여행하고 장난치는 모습이 보일 텐데, 그런 순간들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이번 과몰입 여행이 두 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짧게 들려주세요.

**A** **박도윤** 짧고 가벼운 여행이었지만, 제 일상을 기록하는 첫 걸음이자 의미 있는 도전이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돌아보니 좋은 추억이 됐어요.

**홍순기** 저에게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다시 보는 경험'이었어요. 촬영하고 편집하며 여행을 스스로 준비했다는 점에서 뿌듯했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또 참여하고 싶어요.

# 서구에서 오천원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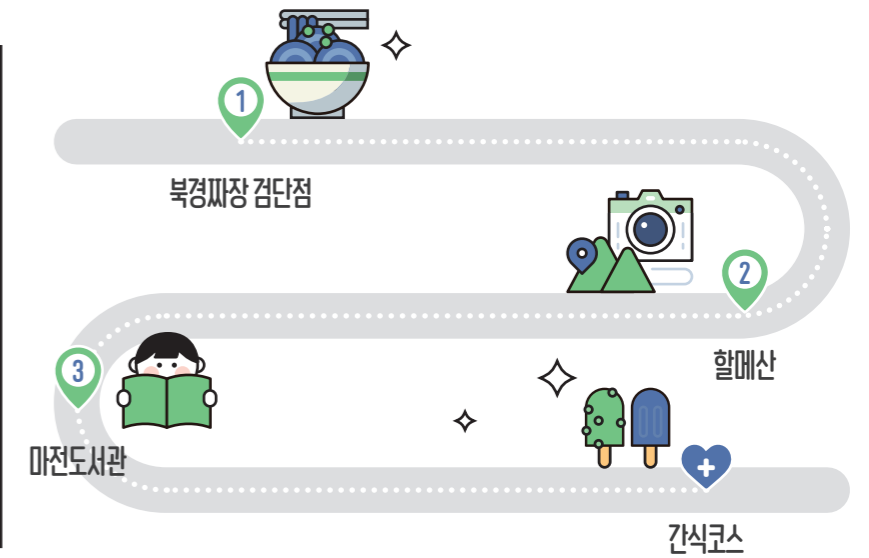
중학생도 부담없이 즐기는 완정

☆ 영상 정보

순기와 도윤의 5000원으로 완정즐기기

#추천 #엔딩 #클릭이긴\_싫은\_여행초보 #초등고\_누구나

영상 바로보기



## 1 북경짜장 검단점

북경짜장은 전국에 체인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오랜 기간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신기한 곳입니다.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변함없이 맛도 그대로여서 중학생 용돈으로도 부담없이 즐겨 먹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한 곳에서 한결같이 운영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갈 때마다 동네 주민들에게 문전성시 받는 애정하는 음식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900원 짜리 짜장면도 항상 맛있게 먹는데, 다른 메뉴들도 얼마나 맛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며 그때까지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담 없는 착한 가격에 부족함 없이 맛있는 북경짜장

**위 치** 인천시 서구 원당대로 553

**운영시간** 11:00 ~ 21:30

**이용료** 메뉴 참고

**휴 무 일** 연중무휴

**문 의** 032-564-5556

## 2 할매산

할매산은 왕복 1시간이면 충분히 등반이 가능해서 우리같은 중학생 초보자들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할매산은 산의 명칭이 '할머니'와 연관이 된 산인 줄 알지만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큰 산을 의미하는 '한 뢰'에서 유래되어 한매산, 한미산, 할매산, 할매산 등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할매산이 아닌 할매산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큰 산이라는 뜻이지만 저희가 느끼기엔 '할머니'쯤처럼 친근하고 언제 가도 안아주시는 할머니 이미지가 할매산에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도 거뜰히 등산할 수 있는 할매산



**위 치** 인천시 서구  
마전동 628-18  
**문 의** 서구청 산림정원과  
**비 고** 해발 104.8m

## 3 마전도서관

마전도서관은 2019년에 개관하여 인천시 서구에서 얼마 되지 않는 신규 공립도서관입니다. 그 만큼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들도 다양하여 시간이 된다면 매일 가고 싶은 도서관입니다(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꼭 가고 있지만요). 1층에는 어린이 자료실과 라운지, 2층에는 일반자료실이 한 층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답답한 이미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으며 2층에 폭신한 의자와 좋은 전경을 가지고 있어서 책읽기에 최적화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 치** 인천시 서구  
원당대로 563  
**운영시간** 일반자료실  
평일 09:00~22:00  
주말 09:00~18:00  
어린이자료실  
평일 09:00~18:00  
주말 09:00~17:00  
**이 용 료** 무료  
**휴 무 일** 금요일,  
공휴일(휴무기간 확인)  
**문 의** 032-590-2800



북경짜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걸어서 3분이면 도착합니다. 다들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하고 든든한 배로 마음의 양식을 쌓으며 도서관 방문해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쾌적한 시설 속 재밌는 책이 가득한 마전도서관



우리 앞으로도 여기 독감은 코스팅 계속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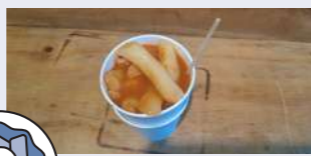
5000원으로 판매 중인 책가

04.03.15 도서관

### 순기외도윤이의 Special Tip 간식코스

#### 독서 후 컵떡볶이랑 아이스크림은 못참지!

도서관에서 책 읽다가 집에 갈 때 뭔가 출출할 쯤인데 그 때 간식코스로 딱이다! 컵떡볶이 한 컵하고, 살짝 입가심을 단돈 600원인 아이스크림을 취향대로 골라먹으면 그게 얼마나 행복인지!



## 류동권



## 서구 청년 새싹이를 위한 첫걸음 안내서

### Q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류동권** 안녕하세요, 저는 류동권이라고 합니다.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편이에요. 보기엔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야생화 처럼 스스로 길을 개척하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지금은 그동안 해왔던 일들 중 특히 잘해온 글쓰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글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우도 있어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도 했고요. 게다가 혼자 촬영, 기획, 편집을 모두 하다 보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늘 따라다녔어요.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고요.

### Q 이번 <서구로 과몰입> 기록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류동권** 인천시 서구로 이사 온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 대한 호기심도 컸고, 저처럼 이제 막 서구에 정착한 청년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가 직접 가본 서구의 공간들을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 Q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완성하셨나요?

**A 류동권** 그래도 끝까지 '이 영상이 나처럼 서구에 새로 이사 온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업했어요. 영상은 단순히 많은 정보를 담는 것보다 꼭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하는 기준을 세웠고요. 대본도 직접 쓰고, 목소리로 나레이션도 녹음했어요. 장면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했죠.

### Q 어떤 방향으로 기록 주제를 정하고, 어떻게 여행을 기획하셨나요?

**A 류동권** 사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서구 청년들이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했죠. 결국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하자는 방향이 정리됐고, 곧바로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에 오래 살아온 청년들도 잘 모를 만큼 숨겨진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곳을 소개하기보단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3곳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 Q 이번 기록사업을 마치고 느낀 점이 있다면요?

**A 류동권** 무엇보다 '기록한다는 건 결국 나와 타인을 잇는 일'이라는 걸 느꼈어요. 영상은 끝났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 에겐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처음엔 도전처럼 느껴졌던 일이 끝나고 보니 나 자신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류동권** 저는 앞으로도 제가 발 딛고사는 지역,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싶어요. 이번 기록도 그 시작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내서가 많은 청년들에게 공유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저처럼 서구에 '새롭게' 자리 잡은 청년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많은 '서구 새싹' 청년들이 자신만의 공간과 이야기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 Q 촬영이나 기록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면요?

**A 류동권** 제게 익숙한 장소였기 때문에 촬영도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막상 촬영 허가를 구하면서 현실의 벽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즐기는 것과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건 전혀 다른 일더라고요. 협조적인 공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 서구 청년 새싹이를 위한 첫걸음 안내서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 영상 정보



영상 바로보기



## 1 그로잉라운지

그로잉라운지는 창작, 예술 등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아트카페로 서구에 거주 중인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로잉라운지를 운영하는 카페 사장님이 미술 상담치료를 오래 해오셨고 서구 지차체와 협력해 다양한 미술 및 예술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기에 예술 활동에 관심있는 청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촬영 날 감기 몸살로 인해서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카페 사장님의 친절한 응대와 따뜻한 허브차 덕분에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로잉 라운지 소개 자료를 메일로 선포 보내주셔서 사전조사 하는데 수월했으며 사장님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 덕분에 그로잉 라운지에서 머무는 시간 내내 따뜻함을 가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작-예술을 직접 보고, 하고,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공간



**위 치** 인천시 서구 건지로 269 3층

**운영시간** 12:00 ~ 21:30

**이 용 료** 카페 이용 시 무료

**휴 무 일** 월요일, 공휴일 (휴무기간 확인)

**문 의** 0507-1383-3909

## 2 서구1939

서구1939는 청년센터로 청년활동, 커뮤니티 지원, 역량 강화 등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종합지원 공간입니다. 제가 가본 서구 내 청년을 위한 공간들 중 다양하게 체험 프로그램과 청년 성장 프로젝트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시 서구 가정역에서 도보 10분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또한 용이한 장소였습니다. 제가 인천시 서구로 이사왔을 초기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던 공간이라 서구 새싹이 청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과 동시에 공간대관도 진행하고 있는데 월요일은 공간대관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서구1939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공간



**위 치** 인천시 서구 봉오재3로 94번길 19 에이스타워 6층

**운영시간** 월~목 09:00~18:00  
토~일 09:00~17:00

**이 용 료** 무료 (\*프로그램 참여 시 이용료 확인 바람)

**휴 무 일** 금요일

**문 의** 0507-1383-3909

## 3 서구드림아카데미신현

서구 아카데미 신현은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동네 주민분들도 잘 모르시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지역 주민 누구나, 언제나,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공간입니다. 그리하여 각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설 및 제공되고 있습니다. 촬영 이전에 <동네영화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구드림아카데미 신현에 영화 관람을 위해 몇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공간을 둘러 보지 못했으나 이번 촬영을 위해 찬찬히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느낀 것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되어 서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소개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2층은 생각보다 넓은 공간과 방음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활동을 보다 걱정없이 활동하기에 좋은 곳, 알맞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숨은 보석같은 공간을 담기 위해서 센터 담당자분께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 꼼꼼하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정확한 정보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참여 문화예술교육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위 치** 인천시 서구 새오개로 54번길 15-1, 1~2층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휴 무 일** 토요일, 일요일

**문 의** 0507-1330-6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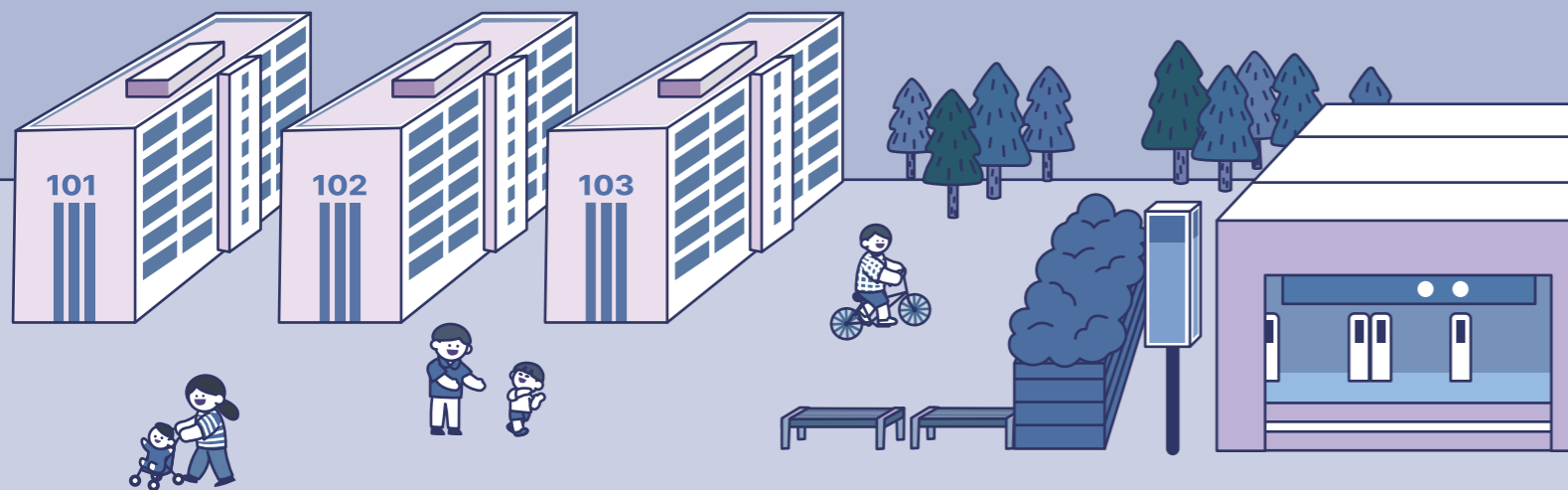
**비 고** 아동, 청년, 중장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진행 및 운영



## 자연에서 느끼는 일상 속 심포

### PART 02

# 서구, 자연에 과몰입하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와 이번 기록사업 참여 계기를 들려주세요.

**A** 박재성 안녕하세요. 박재성입니다. 저는 사실 여행을 계획하기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그 순간을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서구로 과몰입>처럼 코스를 직접 계획하고 기록하는 방식은 낯설기도 했죠. 그럼에도 참여를 결심한 건, 일상 속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늘 스쳐 지나던 장소에서 아름다움이나 평화를 발견해 내는 경험, 그 자체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대였습니다.

**Q** 여행의 중심이 된 주제나 방향성은 무엇이었나요?

**A** 박재성 '도시 속 작은 심포'를 주제로 잡았어요. 서구의 자연 친화적인 장소들을 직접 연결하면서 단순한 장소 나열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이 이어지는 코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족욕으로 시작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맨발로 흙길을 걷거나 숲길을 따라 걸으며 점차 일상의 긴장을 내려놓는 여정이죠.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각 공간이 주는 감정과 메시지를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Q** 여행을 다녀오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A** 박재성 네, 연희공원의 자작나무 정원이나 연꽃이 피어난 작은 연못 같은 공간들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도심 한가운데인데도 그런 고요함과 아름다움이 숨어있다는 게 놀라웠고, 마치 나만 알고 싶은 장소처럼 느껴졌죠. 또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안에 '힐링 팟 라운지'라는 족욕장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공간에서 잠시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묘하게 위로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런 작지만 깊은 평화들이 서구 곳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제게는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Q** 기록이라는 행위 자체는 어렵지 않으셨나요?

**A** 박재성 사실 처음엔 부담감이 컸어요. 그냥 여행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걸 영상이나 글로 남겨야 한다는 점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그 부담감 덕분에 더 예민하게 주변을 바라보게 됐고, 평소 같았으면 놓쳤을 장면이나 감정까지 포착할 수 있었어요. 기록이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제가 느낀 감정과 그 순간의 분위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Q** 이번 <서구로 과몰입>을 통해 서구라는 지역을 새롭게 느낀 부분이 있다면요?

**A** 박재성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렇게 다양한 힐링 공간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기록하면서 느낀 건, 서구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점이에요. 복잡하고 바쁜 삶 속에서도 잠깐 멈춰 설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고, 그걸 기록으로 담아낸 과정 자체가 제겐 하나의 여행이자 힐링이었어요.

**Q** 마지막으로 이 코스를 추천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A** 박재성 도시를 떠나기 어려운 분들,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자연 속의 심을 꿈꾸는 분들께 제 코스를 추천하고 싶어요. 특별한 준비 없이도 발을 담그고, 맨발로 걷고,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경험이었던 거예요. 이 코스를 통해 '도시 속에서도 충분히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서구에 대한 애정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 자연에서 느끼는 일상 속 심포

서구 자연 품에 안긴 하루, 우리 가족 힐링 트레킹

☆ 영상 정보



영상 바로보기



## 1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족욕장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은 2024년 제17회 아시안게임이 주경기장으로 사용되어진 다목적 경기장입니다. 현재는 주민들에게 복합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영화관, 카페 등의 상업시설도 있으며 드넓은 공간과 운동시설들을 보유하여 주민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만난 족욕장은 도심 속에서 만나는 뜻 밖의 휴식처입니다. 웅장한 경기장과 넓은 하늘을 보며 걷다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위해 오랜 시간 걸다가 따뜻한 물이 발 끝에 닿는 순간, 긴장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이 도심 속 평화로운 쉼터라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이 곳을 방문 하신다면 맨발 산책로를 통해 자연 속에서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위 치 인천시 서구  
염곡로 663

운영시간 온수(4~6,10월)  
13:00~16:00  
냉수(7~9월)  
10:00~16:00

이용료 무료  
휴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형행사 시,  
기상 악화 시(우천 및 태풍)

문의 032-456-2100



파란 하늘 아래 족욕으로 힐링 가능, 피로 해결

## 2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맨발산책길

족욕장 뒤편으로 맨발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따뜻함과 온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부드러운 황토 흙길과 모랫길을 맨발로 걸으며 일상 속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객이 늘어나 3단계 조성 공사를 진행하여 약 150m 추가로 연장하여 현재는 695m로 많은 시민들의 걷는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덩거나 추운 날씨에도 제약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온실형 구조나 그늘막을 설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맨발로 흙길을 걸으니 잊고 있던 자연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황토 위를 걷는 느낌은 마치 대지의 숨결을 발바닥으로 느끼는 듯한 포근함이었습니다.



어느 계절에도 쾌적하게 즐기고 마무리까지 쾌적하게 맨발 산책

위 치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806

이용료 무료

휴무일 연중무휴

문의 032-456-2100

## 3 연희자연마당 연꽃공원, 자작나무공원, 암석정원

서구 연희자연마당은 연꽃공원이라고도 불리며 인천 서구에서 산책, 피크닉의 명소로 숨어있다고 생각 합니다. 처음 만난 연꽃 공원에서는 도심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연꽃 공원이 있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사람 키만큼 자란 연잎 사이를 걷는 경험은 마치 비밀의 정원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줍니다. 연꽃 봉오리가 고개를 내밀고 햇살을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활짝 핀 꽃잎 위로 벌들이 날아드는 모습을 보며 마음에도 고요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이어서 들어간 자작나무정원은 하얀 줄기의 자작나무들이 줄지어 선 모습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 숨겨진 비밀 정원 같은 느낌을 줍니다.

붉은 흙길 위를 걸으며 땅과 이어진 감각이 살아났고, 풀잎 사이로 고개를 내민 노란 들꽃 한 송이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석정원은 도심의 풍경과 거대한 암석, 싱그러운 풀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자연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낸 조각품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만난 팼사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 환상적인 풍경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위 치 인천시 서구  
연희동 414-2

휴무일 연중무휴

문의 032-590-7000

비 고 주차장 없음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차장 이용





### 오감만족 친환경 사진여행



**Q** 안녕하세요. 이번 <서구로 과몰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A** **임세은** 여름방학을 맞아 뭔가 보람 있는 걸 하고 싶었는데, 봉사를 가던 아동센터 시설장님께서 이 수업을 추천해 주셨어요. 은지와 저는 절친이기도 해서 같이 하면 재미 있겠다 싶었죠. 사실 저는 서구에 산 지 3년밖에 안 됐고, 이 동네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번 기록을 통해 서구에 대해 처음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영상 편집도 배우면서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참여했어요.

**김은지** 저는 서구에 9년 넘게 살았지만, 동네를 제대로 돌아다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모르는 서구의 모습들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세은이랑 같이 하면 든든하기도 하고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Q** 주제를 '오감만족 친환경 사진여행'으로 정한 이유는 뭔가요?

**A** **김은지** 처음에는 그냥 친구랑 당일치기 여행 코스를 짜는 게 목표였어요. 우리가 평소에 안 가본 곳, 특히 자연과 관련된 곳을 찾아보자고 했죠. 그러다 청라호수공원을 발견했는데, 저희 또래가 자주 가는 곳이고 자연도 함께 있어서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음악분수는 꼭 넣고 싶었어요.

**임세은** 처음엔 다른 주제를 생각했었는데, 답사를 다녀온 뒤에 '이걸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제를 다시 고민하다가, 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쉽게 갈 수 있고, 사진도 예쁘게 찍을 수 있는 친환경 장소들을 엮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죠.

여행의 목적이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기록'이고 '사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Q** 코스를 기획하거나 촬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 **김은지** 처음엔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막막했는데, 계속 조사하면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큰 수확이었어요.

**임세은** 맞아요. 인터넷 검색도 정말 많이 했고, 우리가 직접 1차 답사를 다녀온 것도 큰 도움이 됐어요. 촬영과 이동이 여름이라 덥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친구랑 같이 해서 견딜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이런 좋은 곳들이 있다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Q** 여행을 하며 특히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다면요?

**A** **임세은** 저는 야생화단지가 정말 좋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갈 수 있어서 '명품 서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느꼈고요. 식물과 풍경을 사진에 담으면서 힐링이 되었어요.

**김은지** 저는 청라호수공원이 인상 깊었어요. 특히 음악분수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 너무 예뻐서 감탄했어요. '촬영'이 아니라 '여행'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서, 끝나고 나서도 '이곳은 꼭 다시 놀러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기록'이라는 행위에 대해 느낀 점이 있다면요?

**A** **임세은** 기록여행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단순히 사진 찍고 다녀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장면을 왜 찍는지, 어떤 감정을 담을지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가는 여행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음엔 처음부터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김은지** 편집도 배우고 기록도 직접 해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서구를 소개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걸 느끼면서 책임감도 생겼고요. 결과물이 잘 나와서 뿌듯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도 지나고 나니 다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Q** 이 기록 여행을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A** **김은지** 저희처럼 평소에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 않았던 사람들, 혹은 가까운 동네를 더 잘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대중교통과 도보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진과 추억을 남길 수 있어요.

**임세은** 특히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요. 사진은 찍는 사람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니까, 꼭 유명한 장소가 아니어도 충분히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인천 서구에도 그런 장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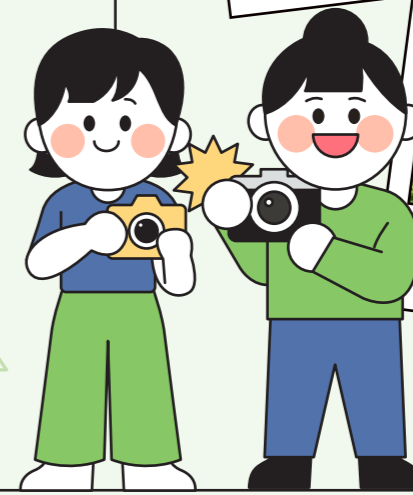
**Q** 이번 과몰입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 것 같나요?

**A** **김은지** 영상 편집도 처음 해보고, 서구 곳곳의 숨은 명소도 찾아다녔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친구와 함께여서 더 특별했고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결과물이 잘 나와서 정말 뿌듯했어요. 그냥 방학 과제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았다는 점이 좋아요.

**임세은** 기록여행이라는 게 단순히 다녀온 걸 정리하는 줄 알았는데, 직접 사진을 찍고 어떤 걸 남길지 고민하면서 기록이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구에 살면서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 여행을 통해 제가 사는 동네를 새롭게 보게 됐고요. 절친과 함께 계획하고 다녀온 것도 좋은 추억이 되었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낸 느낌이에요. 앞으로도 어디를 가든 그 순간을 '기록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 미리보는 Best C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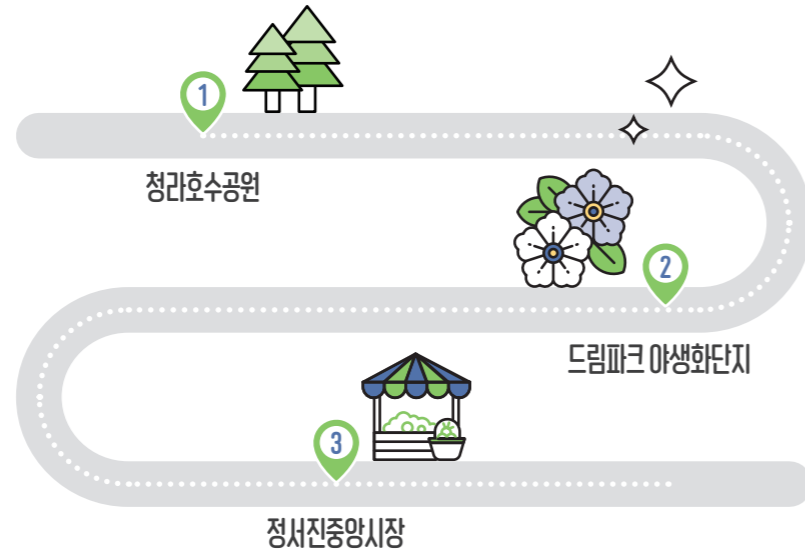


# 오감만족 친환경 사진여행

서구MZ가 픽한 사진 명소

☆ 영상 정보

오감만족 친환경 사진여행  
여행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만족스러운 사진 한 컷" 아닐까요?  
영상 바로보기



## 1 청라호수공원

청라호수공원은 지도로만 봐도 엄청난 규모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상의숲 놀이터, 뮤직아일랜드, 생태축제의 섬 등 다양한 부속시설도 갖추고 있어 공원에서 보다 다채로운 경험과 추억을 쌓기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넓은 공원은 쓰레기가 없어 정말 깨끗했으며, 어딜가나 나무와 꽃도 가득해서 자연을 만끽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조경되어진 식물들과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호수는 잘 어우러져서 누구나 예쁜 사진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초저녁에 방문하여 노을을 담는 것을 추천하며, 봄과 가을에는 꽃과 단풍이 무성하니 자연과 함께한 나, 친구, 가족을 담아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뷰와 시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장소



위 치 인천시 서구 크리스탈로 59  
문 의 032-456-2749

## 2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는 서구에서의 '자연'에서 빠질 수 없는 곳입니다. 다양한 야생화, 나무들도 준비해 있으며, 자연을 보다 즐겁게 즐기도록 축제 같은 문화행사도 많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계절마다 피고 지는 다양한 야생화를 보다 가까이서 접할 수 있으며, 하루동안 다 돌아볼 수 없도록 테마도 다양합니다. 곳곳을 돌아다니며 느낀 것은 다채로운 풍경들은 사진 찍기에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상과 사진을 찍으며 풍경을 바라보는 과정 자체가 힐링이었습니다. 또한 호수, 맨발산책길 등 자연을 바라본다는 관점 외로 직접 자연을 접하고 체험하는 공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자연의 모습을 제대로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야생화단지 방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장소



위 치 인천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  
운영시간 10:00~18:00  
이용료 무료  
휴무일 월요일  
문의 032-560-9940

## 3 정서진 중앙시장

정서진중앙시장은 한국의 '장'을 느끼기에 충분했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아담한 규모로 10분 내로 시장 구경을 모두 마칠 수 있었으나 그만큼 가게 하나하나가 활기차고 따뜻했습니다. 사장님들 모두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여러 '장'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간 시장 내 칼국수 집은 이미 주민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곳이었습니다. 무려 30분을 대기하여 들어간 곳은 남녀노소 사람들의 '장'이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직접 얼굴을 대면하는 주문방식과 정을 직접 손으로 면을 반죽하고 미는 모습, 멸치국물 육수에 적신 손칼국수 한 그릇을 직접 테이블로 내어주시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일회용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먹거리 장소로 더욱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걸던 저희를 기운나게 해준 이곳은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입니다. 아직도 눈앞에서 손으로 밀고 칼질하고 끓이는 모습 자체가 사람의 정을 느끼는 현장 체험 그 자체로 기억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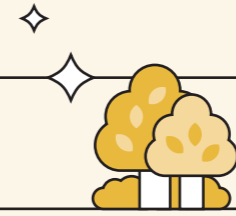
복박복박한 모습과 인정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소



위 치 인천시 서구 원창로239번길 11  
운영시간 점포마다 상이  
휴무일 점포마다 상이  
문의 0507-1410-5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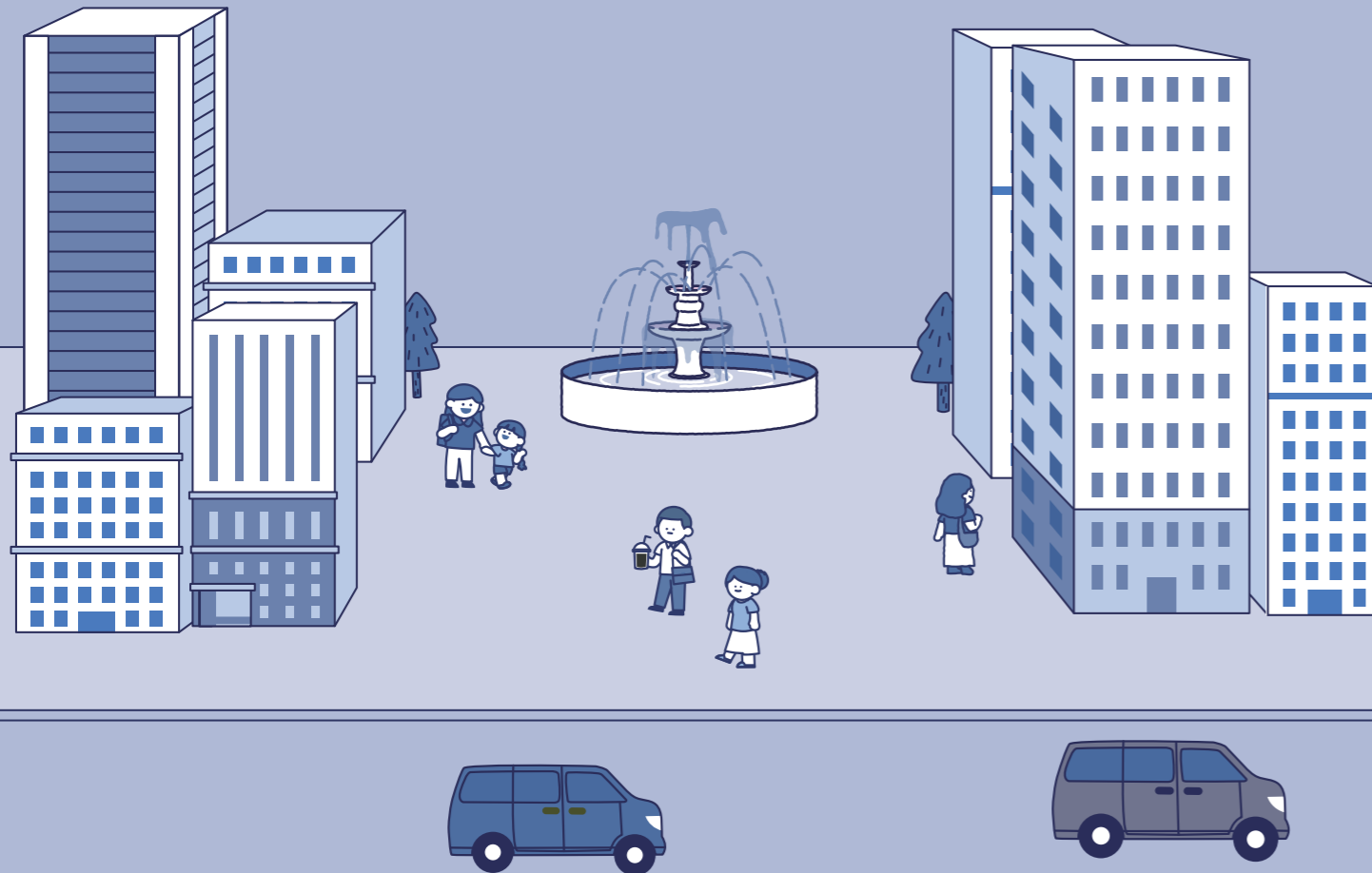
# ⚡ 한사랑



## 서구에서 세 가지 에너지 충전

### PART 03

# 서구, 가치에 과몰입 하다



**Q** 안녕하세요. 이번 <서구로 과몰입> 기록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A** 한사랑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에서 16년 동안 거주하며 지역 아동센터와 도서관을 섬기고 있어요. 사실 '여행'이라는 걸 따로 계획하거나 떠나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왔죠. 그런데 우연히 집으로 배송된 전단지들 통해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영상 편집이라는 키워드에 끌려 참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 서구에 오래 살았지만 여행 경험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어땠나요?

**A** 한사랑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어요. 여행도 잘 안 해봤고,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도 막막했죠. 사실 두 번째 수업부터는 참여를 포기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여행 주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 도서관을 자주 찾았어요. 서구에 관한 향토 자료부터 다양한 지역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서구만의 가치', 즉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대체불가능한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죠.

**Q** 그래서 선택한 여행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A** 한사랑 저는 이번 여행을 '세 가지 에너지 충전'이라는 주제로 기획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실제로 유익하고 충전되는 시간이 되길 바랐어요. 그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죠:  
-신성한 에너지: 검단선사박물관을 걷는 시간  
-건강한 에너지: 아라보타닉파크를 걷는 시간  
-행복한 에너지: 아라뱃길 뱃길을 걸으며 얻는 기쁨  
이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코스를 만들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다녀올 수 있는 1일 여행 코스로 구성했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하면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요. 초등학교 이상이면 누구든 가능한 여행이에요.

**Q** 여행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장소나 순간이 있다면요?

**A** 한사랑 무엇보다도 '검단'이라는 지역 자체가 가진 역사적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 인상 깊었어요. 검단은 단군 신화 속 단군왕검과도 연결되는 '신성한 땅'입니다. 검단선사 박물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성지로 소개할 만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고, 저는 이 땅을 직접 밟는 데서도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앞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도 '대한민국 여행의 출발점'으로 이곳 검단을 소개하고 싶을 만큼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한국의 정신과 뿌리를 소개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Q**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가장 크게 얻은 점은 무엇인가요?

**A** 한사랑 결국 이 여행은 단순한 '기록 사업'을 넘어 제가 살고 있는 서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스를 짜고, 영상을 편집하는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버거운 작업이었지만, 끝내고 나니 스스로에게 참 고맙더라고요. 특히 '서구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자체가 큰 자산이 되었어요. 이제는 인천 서구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 안에서 인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전성지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본 중학생 참가자들이 만든 영상 속 '쓰레기 하나 없는 공간'들이 인상 깊었어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성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작은 실천이 먼저라는 걸, 아이들이 오히려 보여주고 있었죠.

**Q** 앞으로 이 경험이 어떻게 이어졌으면 좋겠나요?

**A** 한사랑 이번 기록을 계기로 서구에 대해 배운 것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서구를 더 알아가고 싶어요. 단순히 내가 사는 곳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곳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기록하고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나아가 인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성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부터 더 많이 배우고 넓혀가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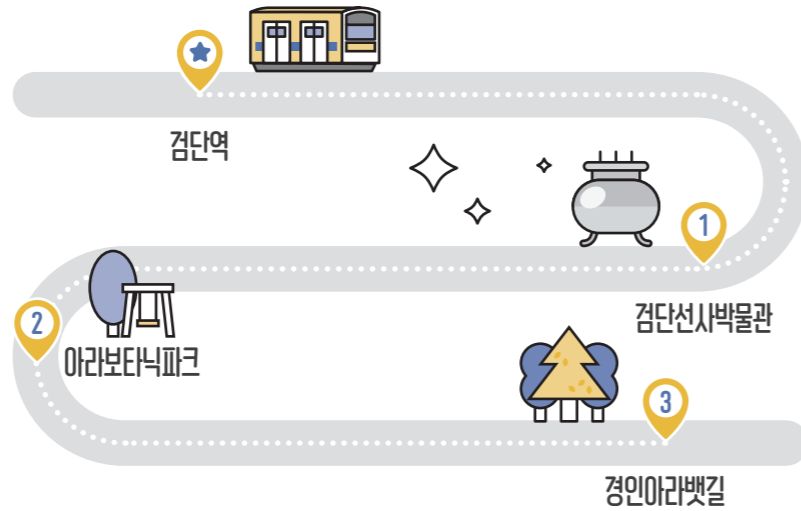
# 서구에서의 세 가지 에너지 충전

혼자서도 안전하고 조용한 서구 충전여행

☆ 영상 정보



영상 바로보기



## Geomdan Station (1) Geomdan Prehistory Museum

대한민국 3대 명산은 백두산, 한라산 그리고 마니산입니다. 이 중 마니산은 우리나라를 최초로 세운 단군왕검이 하늘의 신께 제사를 드린 곳이라 하며, '검단'이라는 지명 자체가 신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 신성한 땅이라는 뜻을 품고 있어서 서구에서의 충전여행이 '검단역'에서 여행을 출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1 검단선사박물관

검단선사박물관에서는 '신성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상설 전시로 인천시 서구 및 주변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서 출토된 선사시대부터의 유물들이 약 46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 검단 지역은 여러 시대에 걸쳐 다수의 거주민, 풍부한 수자원으로 식량 자급이 자급자족한 생활 중심지 가운데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양동과 원당동에서 발굴조사된 집터를 복원해 놓은 공간을 통해서 당대 시대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담한 공간에서 전달받는 '신성한 에너지'는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역사 속에서의 '검단'이라는 지역의 가치를 입증해 주는 서구에서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역사를 생생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박물관



**위 치** 인천시 서구 고산후로 121번길 7  
**운영시간** 09:00 ~ 18:00  
**이용료** 무료  
**휴무일** • 월요일  
 • 공휴일 정상 개관  
**문의** 032-440-6790

### 2 아라보타닉파크

아라보타닉파크는 '건강한 에너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검단선사박물관에서 도보로 5~10분내 위치한 보물단지 같은 장소이며 조용히 혼자 사색하며 걷기에 최적입니다. 누군가는 너무 단조롭다고 여길 수 있으나,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적당한 바람과 풀 소리를 느끼며 걷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환기되며, 몸과 정신 모두가 평안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조용한 사색으로 내·외면의 에너지를 채우기 좋은 산책길



**위 치** 인천시 서구 원당동 986  
**비 고** 22시 이후 가로등 소등

### 3 경인아라뱃길

경인아라뱃길에서는 '건강한 에너지'에 이어 '행복한 에너지'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아라'는 우리 민요 아리랑의 후렴구 '아라리오'에서 따온 말로, 한강 갑문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김포시와 인천시 계양구를 지나 인천 서구를 거쳐 바다로 이어집니다. 한강까지 이어지는 긴 도보 코스는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춰 코스와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어 최적의 힐링 공간입니다. 실제로 산책, 러닝, 자전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으며, 주변의 강물과 나무들은 한껏 행복 에너지를 더해줍니다.

몇 시간 동안 코스를 걸으며 인상 깊었던 점은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매주 토요일마다 인천시 서구의 중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이들의 따뜻한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곳을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행복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위 치** 인천시 서구 오류동~시천동  
**전망대** 인천시 서구 정서진1로 41

**운영시간** 전망대 06:00~21:00  
 홍보관 09:30~17:30

**문의** 1599-3650

**비 고** 전망대와 홍보관은 촬영장소와 거리가 상이한 공간임 (차량 방문 추천)



사람까지 명품인 서구를 보며 행복감이 가득했던 아라뱃길



열심히 환경 봉사 중인 서구의 학생들

# 박선이&최찬규



## 서구의 자랑거리 녹청자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박선이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인천 서구로 이사 온 지 넉 달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글을 쓰고 기록하는 걸 좋아하고, 제 남편은 역사학자로 활동해왔어요. 어디를 가든 그 지역의 역사부터 공부하는 스타일입니다.  
최찬규 맞습니다. 이사한 다음 날부터 바로 '인천의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문화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서구학(西區學)'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천 서구 향토사 연구자'의 눈을 가지게 됐죠.

**Q** <서구로 과몰입>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A** 박선이 사실은 '녹청자'라는 단어에서 시작됐어요. 서구학 자료를 읽다가 인천 서구에 녹청자 도요지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죠. 저희는 역사 유적 중심으로 여행을 많이 해왔는데, 인천에 녹청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무렵 마침 <서구로 과몰입> 참가 모집 공고를 봤고, 주저없이 신청했어요. 나이가 있어서 혹시 안 뽑히면 어쩌나 싶어 문화원에 전화를 걸어 꼭 선정되게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도 했고요. (웃음)

**Q** 이번 여행의 주제로 '녹청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최찬규 사실 도자기 여행은 저희 부부의 오래된 취미입니다. 전라도 강진, 경기 이천, 심지어 제주도까지 도요지를 찾아 다녔죠. 그런데 생활권 안에서 녹청자 도요지를 발견한 건 뜻밖이었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자기에 대해 잘 모릅니다. 고려청자나 백자 정도만 알고, 도기와 자기의 차이도 헷갈려 하죠. 그런 상황에서 '녹청자'는 아예 생소한 존재입니다.  
'녹청자가 무엇인지', '왜 덜 알려졌는지'에 대해 스스로 궁금해졌고, 그래서 '녹청자'에 대해 제대로 기록하여 인천 서구의 가치를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실제로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어땠나요?

**A** 최찬규 녹청자박물관에 갔으나 정작 실물이 많지는 않았어요. 알고 보니 대부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문화재는 원래 있던 자리와 연결된 맥락 속에서 볼 때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녹청자도 언젠간 이곳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특별히 이번 여행에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A** 박선이 기존 여행과 달리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이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내가 느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후엔 부담보다 즐거움이 커졌고, 세세한 부분까지 더 주의 깊게 살피게 됐어요.  
최찬규 맞습니다. 기록을 염두에 두니 태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녹청자가 어떤 흙과 유약으로 만들어졌는지, 가마의 온도는 어땠는지 등 작은 부분까지 궁금해졌고, 직접 답사하며 정리하는 과정이 무척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인천 서구의 녹청자 도요지는 꼭 가볼 만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서구로 과몰입>을 통해 느낀 인천 서구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A** 최찬규 녹청자는 인천 서구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유산입니다. 흔히 서구를 산업 지역으로만 인식하지만, 녹청자는 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이죠. 이번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 지역과 연결된 경험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넉 달 만에 이렇게 깊은 애정을 느낄 줄 몰랐고, 앞으로도 서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박선이 저희에게 녹청자는 '발견'이었고, 서구는 '재발견'의 공간이었어요.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자신 있게 소개하고 싶은 동네가 되었죠. 외국인 친구가 "그 지역엔 뭐가 유명해?"라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녹청자!"라고 답할 거예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 서구가 도자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인천서구문화원에도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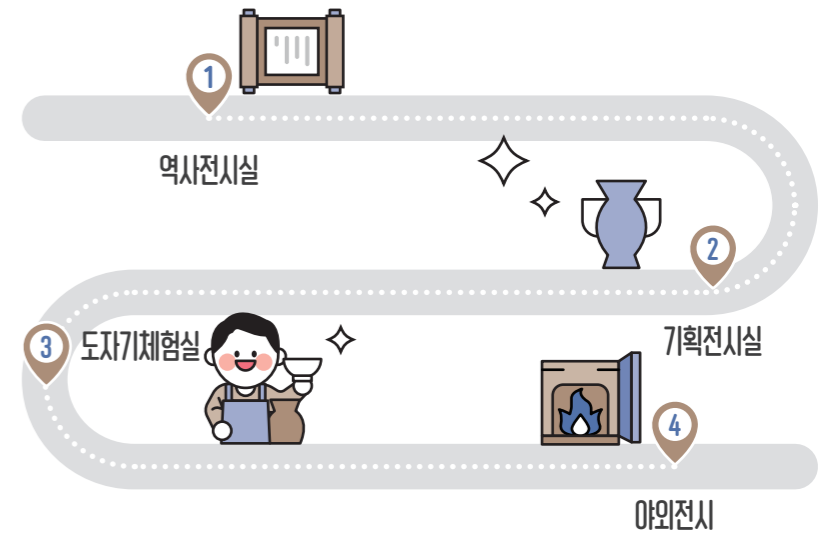
## 서구의 자랑거리 녹청자

인천 서구에서 녹청자 제대로 알아보기

☆ 영상 정보




▶ 영상 바로보기



### 녹청자박물관

녹청자 박물관은 녹청자에 관한 한 국내 유일의 박물관입니다. 전라남도 강진의 고려청자박물관, 고흥의 분청문화박물관과 같은 맥락으로 특정 도자기를 주제로 한 대표적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녹청자를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천녹청자 박물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전시는 역사전시실·기획전시실·체험실·야외전시로 구성되어 있어, 발굴 자료와 제작 과정, 그리고 체험과 복원 모형까지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날은 학생부터 성인까지 도자기 체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학예사 선생님은 "주말에는 개인, 주중에는 단체를 대상으로 체험 교실을 운영하는데 늘 신청자가 많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역민과 관람객 모두 전통 도자 문화를 직접 배우려는 열기가 크다는 사실은 무척 인상적이었고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녹청자도 만나고 여러 도자 기법도 비교 가능한 녹청자 박물관



**위 치** 인천시 서구  
도요지로 54

**운영시간** 09:00~18:00

**이용료** 무료  
(프로그램 별 이용료 별도 추가, 상이함)

**휴 무 일** 월요일, 공휴일  
(휴무기간 확인)

**문 의** 032-560-2932

## 1 역사전시실

녹청자박물관 역사전시실에서는 녹청자의 제작 과정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도자기의 흐름을 선사 시대 토기부터 고려 시대 청자, 조선 시대 백자에 이르기까지 시대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전시해 두었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녹청자와 한국 도자사의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녹청자의 제작 과정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도자기의 흐름을 선사 시대 토기부터 고려 시대 청자, 조선 시대 백자에 이르기까지 시대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전시해 두어 어린 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녹청자와 한국 도자사의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2 기획전시실

기획전시실은 2004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현대도예공모전' 수상 작품들과 인천지역 도예가들의 현대 도예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역사전시실에서 고려 시대 도자기를 공부했다면 이곳에서는 현대 도예 작품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전시실에서 과거의 도자기를 통해 감춰진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이곳에서는 현대 도예가들의 화려하고 개성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통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100년 후의 후손들이 2025년 무렵 도예가들은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전시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재미도 있었으며, 두 시대를 함께 바라보며 도자 문화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 3 도자기 체험실

도자기 체험실은 주중에는 단체, 주말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본적인 도자기 공예 입문 과정부터 준 도예가 수준의 생활 도예 실기까지 다양한 도예 정규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접 흙을 빚어 만든 작품을 가마에 구워 완성품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체험자가 느낄 성취감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일반인들이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흙을 빚고 형태를 잡는 동안 잠시나마 도예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더불어 창작의 즐거움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자기'라는 주제를 떠올릴 때, 이곳에서의 체험 경험이 가장 먼저 기억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별 요금

| 구분      | 요금            |
|---------|---------------|
| 물레성형    | 개인 9,000원     |
|         | 단체 7,000원     |
| 흙가래성형   | 개인 8,000원     |
|         | 단체 6,000원     |
| 도자기 페인팅 | 개인, 단체 5,000원 |
| 도예 정규교육 | 월 50,000원     |

## 4 야외전시

야외전시에 나가서 놀랐던 점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통 가마를 재현해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을 때는 입구 쪽은 낮고, 뒤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오름가마 형태로, 실제 제작 당시의 구조와 분위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누구나 가마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실제 장작불을 지펴 도자기를 구울 수도 있는 시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부응 교수가 기증한 200여 점의 항아리가 전시돼 있어 당시 생활자기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와 생활 문화가 한 공간에서 만나는 뜻깊은 장면을 경험하고 담아 기록할 수 있다는 게 오래 기억남을 것 같습니다.



**발행일** 2025년 10월 31일  
**발행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A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 쓰리엠타워 7층  
 T 032-582-4341  
 F 0502-582-4742  
 H www.inscc.kr  
**발행부서** 문화예술팀  
**기획총괄** 서덕현  
**기획편집** 조혜린, 오주희  
**집필** 김아영, 김은지, 류동권, 박도윤, 박선이, 박재성, 임세은, 최찬규, 한사랑, 홍순기

본 가이드북은 2025년 서구기록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가이드북에서 소개된 장소 및 업체로부터 어떠한 광고료도 받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